

한기총, '부활절 특별감사예배 단독 개최 한다'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본당, 설교자 박종순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 주최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자 가정을 위한 한국교회 부활절 특별 감사예배'가 4월 5일 부활절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본당에서 단독으로 드러진다.

섬김과 나눔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활절 예배에 설교는 한기총 명예회장이자 총신교회 원로인 박종순 목사가 맡기로 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활절 예배가 연례적인 행사처럼 드러져 왔는데,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기총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삶으로 실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자 가정이다. 일본군 위안

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70만 명이 넘었는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다. 상당수 장애인들이 보호를 받지만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함이 있고, 북한 이탈자들이 한국에 와서도 또 걸도는 현상이 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로 부활절 예배에 함께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부활절 예배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교회 부활절 특별감사예배에서 드러진 현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래는 2015 부활절 결의문

2015년 부활절 결의문
우리는 201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4장 34절)하신 말씀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시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길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자 가정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양극화된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 대국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선포하고, 남북이 복음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기도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5일
2015 한국교회 부활절
특별감사예배 예배자 일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지저스타임즈 제 3대 이사장 업무 시작

사셨네 사셨네 사랑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가 지저스타임즈 제 3대 이사장이 되어 신문과 JTNTV방송 운영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신문방송 확장을 위하여 힘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본사는 3월부터 여의도 서한 빌딩 6층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인천 서구 가좌동 영광교회 4층에 신문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저희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전국 27개 지사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DM발송하며 택

배를 통해서도 배워되고 있다.

발행인 정기남 목사가 2005년 크리스찬포토저널 인터넷방송을 시작했으며, 2007년 지저스타임즈를 발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이사장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사장 소진우 목사(예복교회)는 정기남 발행인과 직원들이 함께 본지와 JTNTV인터넷방송을 통해 신속 정확한 보도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힘을 것을 다짐했다.



담임장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담임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3대 이사장



한교연,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교연은 지난 20일(금) 오전 10시 서울 지방법원에 봉은사역명 사용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시가 역명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지극히 종교편향적인 역명을 사용함으로써 종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가처분 신청서류는 한교연 선교교육부장 최귀수 목사와 기획홍보실장 김 훈 장로가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접수했다.

한편 한교연은 23일 오후 2시 서울시가 봉은사역으로 명명한 지하철 9호선 코엑스 교차로를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를 비롯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시찰했다.

왜 서울시의 봉은사역명이 부당한가를 직접 확인한 결과를 24일(화) 오전 10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봉은사역명 왜 잘못 났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 등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눅24:13-23)

축
부
활



황원찬 목사
화양동장로교회담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아침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의 이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지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부활하셨습니다.

요11:25절과 고전 15: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신앙, 소망은 부활의 신앙이며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주안에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의 새 아침이 있습니다.

(2면에서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축
부
활

대한예수교장로회 화양동교회

2015 표어 :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황 안 재 (Senior Pastor)
담임 목사: 황 원 찬 (Pastor)
장 로: 김경철, 류근승, 윤호일, 정진수, 조영현, 정영현, 이종식/강민철, 현상일(안수)
부 목 사: 장희중(학원회, 청년회, 행정)
협동목사: 권오형 천영석 장영웅
전 도 사: 이은자 (주일학교 행정, 심방), 이남일 (전도, 심방, 구역)
미주교회: 김도경 목사이(미국 남가주 설립교회)
18303 AGUIRO St, ROWLAND HTS CA 91748 U.S.A
선 교 사: 진 훈(중국) · 데이비드(미국) · 김희진(자호스텐)
윤재관 · 윤혜미(아프리카나스) · 다니엘(가나)
지 휘: 한승희
찬양인도: 맹현국, 이상진, 안혜림, 김전숙, 정현, 김선희, 남지혜, 박종혁
반 주: 전혜영 (실로암성가대, 피아노), 최나란 (주일예배 오르간)
황은애(주일 찬양), 조수진(심방예배), 허예은(감리회)

예배시간 및 모임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오전 8:00	영아 · 유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유 · 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주일 찬양예배	주일오전 2:00	중 · 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세례 기 도 회	매일 새벽 5:00	중 · 고등부 모임	토요일 오후 4:00
성일 저녁예배	성일 오후 7:00	대 학 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대 학 부 모임	토요일 오후 6:00
금요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청 년 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새신자양육모임	주일날 12:30-1:00	청 년 부 모임	토요일 오후 6:00
축구 선 교 회	주일 오후 4:00	말씀 교제 모임	주일날 12:50-1:50



담임 황원찬 목사

프로필
안양대학교 신학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
미국 남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학사
미국 아주사서신대학교 석사
미국 리플드신학대학원 박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외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석수총회)장
현화양동장로교회 담임목사

부활의 증거(눅24:13-23)

〈1면에 이어〉 할렐루야! 부활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지 3일만에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요11:25절과 고전 15:2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도의 신앙, 소망은 부활의 신앙이며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JTNTV참고)**

A. 그들의 닫힌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3-24절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중에 엠마오 마을이 고향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본문 13절에 25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했습니다. 더욱이 절망과 낙심 중에 힘없이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이었습니

다. **중략(JTNTV참고)**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부활의 신앙은 닫힌 귀가 열리게 되어 부활의 기쁨, 소망을 갖게 합니다.

B. 그들에게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왜?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두 제자는 슬퍼하고 낙심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죽으셨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는



황원찬 목사
화동동장로교회담임
(대신대총장)

것입니다. **중략(JTNTV참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C.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성도들이 과연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주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딱을 때려 주시며 기도해주시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린 새싹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합시다.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자(막16:1-11)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 존재의 미가 없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15:17)라고 하셨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므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 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서 증거 하신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던 것이다. 그가 살아계시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중략(JTNTV참고)** 구약에는 항상 제사와 거기에 수반되는 동물들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약이 예수그리스도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약은 제사 드리는 방법과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 본문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하는 첫 번째 여인들의 말씀이다.

1)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시간적으로 금요일오후 3시

에서 주일 새벽까지로 보아 대략 35시간 내외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아마 다른 안식일보다 긴 시간들이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과연 예수가 살아날 것인가? 또 살아나면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과 두려움 가운데 보낸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부터 활동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닌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부활의 새벽이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간 무덤은 비어있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군병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이 죽더라도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철저히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덤에 돌이 굴러져있었다. 천사가 그렇게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담임

했다고 증거 했다. 그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2)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다.(마28:8-9)

항 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려 할 때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이 인간위에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하고 죄의 굴레를 벗고 구원의 승리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신 것이다.(롬8:2)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인류역사상 맨 처음 전하는 사람은 여인들이었다. 당시에 연약하게 보였던 여인들이었지만 예수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거 한 것이다. 결론 :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빈 무덤 즉 부활의 주님이다.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 하는 것이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이 없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하였는가? 부활은 역사적사건이며 동시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목격자의 증언이다.

부활, 복음의 핵심(고전 15:1 - 11)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롬1:2-4).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 아니라 신자들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의 부활은 그리스

도의 부활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요14:19).

1. 부활은 진리입니다. 본문에 "성경대로"란 말이 두번 나옵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하여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중략(JTNTV참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진리이요, 역사적 사실이며, 그 사실이 반드시 전도의 내용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곽영민 목사
예강대능교회 총회장

승리의 부활 (고린도전서 15:54~58)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하며 심문을 받으실 때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로마 병정들의 잔인무도한 매를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와 십자가에 못 박혀 열리엘라 마시바다하며 부르짖으며 운명하실 때 같아서는 완전 패배지요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고전 15: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게 대한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엮이 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죄로 모든 인간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을 당해 왔는데 제 2의 아담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므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마귀가 완전히 패한 날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 승리입니다. 유대인 600만명을 가스로 독살시킨 악독한 히틀러가 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한 것입니다. 악독한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고 완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고야 만 것입니다. 예



이효은 목사
연북부흥사회의 총재
(화정총교회 원로 목사)

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을 마침내 이기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입니다.

요 8장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 하였느니라"란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실 때는 거짓이 진리를 죽이고 승리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마귀의 거짓을 이긴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4.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중략(JTNTV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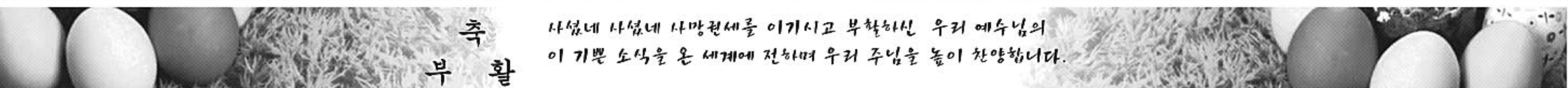
5.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영생을 얻고 장차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원수는 사망이요, 이 죽음이란 괴로움 앞에 모든 인간이 공포에 떨었으나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않은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 다시 올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18월 등록번호 : 서울04-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을 준수한다
대표이사: 정경진 목사 이사장: 정경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경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hanmail.net / jt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문서 놓여준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경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교회당 매매

서울시 노원지역
매매가격: 26억원
대지:313.5㎡(94평)
건평:894㎡(268평)
층수:5층
용도:1~3층
(상가.월 임대료 440만원)
4~5층(예배당.교육관)
보증금:1억7천만원
대 출:우리은행 8억5천만원

연락처:010-2868-7302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황원찬 박사
(대신석주총회 총회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정신 바탕에 인재육성
세상을 움직이는 신학대학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본 신학대학원대학교는 대한원격신학연구원을
개원하고 많은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석수동)
☎031-470-3333, FAX 031-473-5947
http://www.dtu.ac.kr

성 경 세 미 나

◆ 회개복음 ◆ 성경통독
◆ 사복음서의 영적비밀



장민천 목사



방요섭 목사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4시

한눈으로 보는 성경역사(중)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7번길 5 (만수동)
등록전화 : 010-8733-5411 010-9769-7991

장소 : 주영광교회

에녹부흥신학원



http://kiea.onmam.com

주식 무료 제공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 오후 2시(학술원)
☞ 장소 : 등불교회, 예수능력치유센터
☞ 주소 : 인천 남구 능해길59, 남구 송의1동 441-45)
☞ 문의 : (사무간사) 010-6778-0651

에녹총회 신학원, 연구원, 학술원생 수시모집
수업일 : 매주 금.토 오전 10:00 부터~
몸찬양(무용, 국악, 찬양) 매주(목) 오전 10:00~

정대성 목사 개신총회 수도노회장 취임예배

삼성중앙교회에서 정대성 목사 노회장 취임 및 정기모임 가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신) 수도노회는 지난 3월21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덕양구 화신로 삼성중앙교회(정대성 목사)에서 노회원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대성 목사가 초대 수도노회장으로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회계 임찬미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조에스더 선교사가 기도, 노회서기 이종원 목사는 성경(출 32:1~14)을 봉독하고, 개신총회 초대총회장 박 용 목사가 "목이 곧은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박 총회장은 수도 노회장 정대성 목사와 삼성중앙교회 성도들을 축하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그는 설교 중에 이 시대의 흐름을 지적하기를 사람이 죽어 가는 모



습을 보고도 끔찍도 안하지만, 강아지가 죽어 가면 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이러한 현실,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여 인간의 양심이 병들었다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박 총회장은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듣는 것은 빨리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할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아울러 목회자는 양보하는 미덕과 섬기면서 하나님의 화를 이루는 수도노회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날 박 용 총회장은 수도노회

도들은 듣는 것은 빨리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할 것과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아울러 목회자는 양보하는 미덕과 섬기면서 하나님의 화를 이루는 수도노회가 될 것을 기원했다.

이날 박 용 총회장은 수도노회

장 정대성 목사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김중섭 장로는 수도노회를 중심으로 개신총회가 우뚝 서서 연합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노회장 정대성 목사가 될 것을 믿는 다며 축하했다.

이날 초대 수도노회장 정대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중을 수도노회 노회장으로 세워주셨다며, 오늘 총회장님과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개신교인이 더욱 발전하는 노회가 되며, 또한 노회는 총회를 위하여 기도로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인사가 있는 후 류영근 목사(부노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힘찬 새 출발로 달려가는 예상 개신총회 수도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 부노회장 류영근 목사(금촌초대교회), 서기 이종원 목사(성령교회), 부서기 백운학 목사(영광교회), 회계 임찬미 목사(삼성중앙교회), 부회계 양태술 목사(일화양진교회) 등이다.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 "섬김과 나눔 축제" 열어

어려운 목회자와 이웃 300명 초청, 쌀과 설탕 제공

인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손신철 목사), 목회자복지분과선교위원회가 주최하고,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대표회장 조강수 목사)및 섬김과 나눔이 주관하는 제98차 '섬김과 나눔' 예배 및 축제가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영광교회(담임 조강수 목사)에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200여명과 어려운 이웃 100여명 등 300여명을 초청하고 섬김과 나눔의 축제를 열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조강수 목사(인기총 공동회장 / 인기목 대표회장)의 인도로 진행되어 서초원 목사(번영교회)가 기도하고, 이충우 목사(선교제자교회)가 성경봉독(갈2:20절)을, 김진경 음악선교사(외1)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특별한찬양을, 헬시바찬양단(영광교회)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조일래 목사(기성 직전총회장, 인기목 직전대표회장)는 "신앙생활이 무엇이었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를 드린 후 인천 성시화를 위하여 김진대 목사, 섬김과 나눔의 확산을 위하여 인기목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한 후 최병현 목사(사랑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로는 이흥선 목사(인기목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박경복 장로(인천연합교회 증경회장)가 기도한 후 조일래 목사는 조강수 목사에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이하-인기목) 대표회장 추대패와 인기목 旗가 전달되고, 증경회장 나경원 목사(주안장로교회 원로)는 직전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직전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대표회장 조강수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조강수 대표회장은 "부족한 것을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인기목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다. 어렵게 때부터 주님을 섬겼고 주님께서 오늘까지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의 종은 아니요가 없다. 주의 종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바에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일이라면 아니요를 하지 않았다. 삶은 좋은 어떤 때는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손가락질도 받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비방도 들지만 주의 일을 위한 것이기에 주님의 종은 오를 새벽에 들었다고 했다. 축도로 축성해서 인천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한 인천기독교목회자총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취임인사를 전했다.

또한 인기목 증경회장 나경원 목사(주안장로교회 원로)가 인사말과 격려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전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인기목 총회장 손신철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이화재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의원 및 인천정부무부장, 강병석 서구청장 등이 각각 축하했다. 또한 인기목 목회자복지분과위원장 강영권 위원장의 인사가 있던 후 인기목 실무회장 박무평 목사의 내빈소개로 2부를 마쳤다.

3부 진행은 점심식사 후 목회자들은 팀별 식사대회를 열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광교회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쌀 1포와 설탕을 제공하고, 목회자들에게는 쌀 1포씩 전달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 또한 영광교회는 매주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기목은 섬김과 나눔의 축제를 매년 3~4회 거쳐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목회자들을 초청 섬김과 나눔의 행사를 해오는 가운데 2015년 3월 현재 98차가 된다. 인기총과 인기목은 매년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예복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드려

허광재 목사, "교회가 변해야 세계가 변한다"



드렸다.

담임 소진우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이상용 장로가 기도하고, 요 3:16~19절을 봉독한 후 예복교회 성가대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로 찬양을 드렸으며, 허광재 목사는 "신앙생활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광재 목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1. 빛의 생활이며, 2. 전도 생활에 있어 미소를 짓고, 반갑게 인사하고, 고운 말로 칭찬하고, 감사하라고 했다. 또한 전도생활의 중요성은 좋은 인상으로 접근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허 목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식을 피하라고 했다.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정 중심이 되고, 생활의 터전이 되어야 하며, 성도가 담임목사 중심은 질서의 터전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변해야 세계가 변한다'며 말씀을 전했다.

이날 소진우 목사는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주일낮예배에 설교를 한 허광재 원로목사, 이석용 원로

목사를 초청하였으며, 이날 한강을 맞이한 이미숙 김중섭, 김수경 등 세분의 권사와 장로들과 함께 교회 설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소진우 목사는 한강을 맞은 세분 권사에게 꽃바구니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어 이석용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설립 21주년을 맞이한 예복교회 담임 소진우 목사는 지저스타임즈 신문사와 JTNTV방송사 사장이며 문서선교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부흥감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이다. 현재 신문방송사는 전국에 27개 지사와 해외 선교사들로 구성된 지사 및 기자들이 3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담임 소진우 목사)는 1994년 설립되어 2010년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원로로 40(장암동) 수락리버시티 2.3단지 내에 성전부지를 구입하여 성도들과 많은 동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시삽을 가진 후 2013년 4월 20일(토) 새 성전 입당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다.

지난 3월 22일(주일)오전 11시 설립 21주년을 맞은 예복교회 소진우 담임목사는 주일낮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설립기념감사예배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 총회

본 합동보수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뜻을 같이 할 교단과 개 교회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축 부 활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주지광 목사
사천대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전예희 목사
성명교회



김관호 목사
서명교회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축 부 활

2015년 총회 강도사고시 공고

- 원서접수: 2015년 4월 10일(금/우체국소인)
- 시험일시: 2015년 4월 20일(월/오후2시)
- 접수 및 시험: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1-47(동천교회)
- 제출서류: 고시원서(총회) 1통 / 노회장 추천서 1통
총회신대원 졸업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진(여권용) 3매 / 고시료 입금증명서

- 시험과목: 조직신학(예제참고), 교회정치(예제참고), 교회사(예제참고)
- 주제(갈3:1-14/ A4용지15-20매)
- 설교(엡2:1-10/ A4용지5-8매)
- 연락처: 강대일목사 010-3919-5113/ 주지광목사 010-8503-4095

2015년 목회자부부 하계수양회 공고

- 일시: 2015년 6월 8-10일 (2박3일/ 접수,오후 4시)
- 장소: 아산 토비스콘도
- 주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61-15
- 전화: 041-541-5432
- 회원회비: 1인 6만원(부부별도 추가)

- 노회후원: 20만원
- 후원부탁:
- 연락처: 전예희목사 010-7617-3331
김관호목사: 010-7788-0091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황원찬 총장, 교사확장과 교단영입에 주력할 것!

교사신축공사로 신학생 입학정원 충원과, 목회자들의 연장교육 희망 있다!



오직 교단발전과 대한신학대학교를 성장시키며,

이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총회장 황원찬 목사는 올봄 부족한 신학교 교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신축공사를 앞두고 총회 임원들과 16개 노회 임원들이 연석회의를 갖는가 하면 합심하여 기도 에 힘쓰고 있다.

황원찬 목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0(석수동)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석수)총회 총회장과 대한신학대학교 총장이며 화양동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여 목회자 영입과 양성에 힘쓰겠다. 황원찬 총장은 신학교가 중심이 되어 총회가 설립되었지만 지난 약 10여년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 다. 지금은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통합을 가졌지만 본 대학원대학교는 대신교단에서 설립되었습니 다. 본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많은 세월을 이사분규 사태가 있었고, 그결과 지난 10년간 관설이사체제로 학교역사가 굴절되었습니 다.

그래서 학교는 발전하지 못했고, 학교는 그 상태로 상당한 정체상태에 있었습니 다. 하지만 정이사체제가 2011년 7월 1일 파송되어 2015년 6월 말이면 1기 정이사체제가 만기가 됩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누적됐던 학교의 영키고 실천 것들 재정적인,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등 양과 겹칠 벗겨내듯이 끝없이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 다.

그러한 아픔이 최근야 안정에 들어갔으며, 감사한 일입니다. 신학교가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학우들이 본과 석박사 과정에 충원되면서 대신총과 백석교단이 연합되고, 전광훈 총회장

은 2014년 11월 말경에 석수동 대한신학대학교는 대신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이때 본원에 남아 있는 17명의 학생들이 안양신대원으로 강도사, 목사안수문제에 떠났습니 다.

그래서 본 신대원은 M.Div 과정과 우들을 안수 주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게 되었고, 고심한 끝에 여성들도 안수를 하지는 차원에서 본 교단은 여성안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일부노회에서는 여성 목회자들도 있으며 여 목들도 본 교단에 영입하게 되었습니 다. 하지만 아직은 특별한 어떤 조직에 있어서 미흡합니다. 아직은 허약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총회와 신학교는 안수문제도 시급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황 총회장은 대신교단(석수) 발전을 위하여 큰 비전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로 본 교단은 신학교를 중심으로 본교의 역사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아울러 본교 출신인 동문들을 중심으로 또는 영입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석수총회의 정체성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 다.



둘째로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인데, 뜻을 같이하는 군소교단들을 영입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단 이 아닌 이상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 목회자라면 영입하여 본 교단이 실시하는 목회자연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 본 교단에 소속한 총회원으로써 함께한다는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정대신(석수)총회는 여성 목사안수문제에 대해 총회에서 이미 결 의되었으며,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는 각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목회자들이 몇몇 노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안수문제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본 대학원의 역학구조를 위해서는 개인의 교리적인 입장만 고수할 수 없고, 어차피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여 목에 대한 문이 열려졌 습니 다. 고로 이 시대의 조류에 같이 편승한다고 보기 전에 그분들의 나름 대로 소명을 위한 그런 진로들을 개인 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 총회는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교사확장으로 신학생 입학정원이 충원되고,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에 희망이 있다.

대한신학대학교원대학교는 희망이 있습니다. 본교는 M.Div 과정에 있는 여성 학우들이 많습니 다. 또한 본 대학원은 신학생 입학정원이 충원되고 있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 다. 그리고 본교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하기를 받았으며 4월부터 교사를 기억자로 신축하게 되고, 또한 본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입 하는 교단과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선지생도들을 위하여

최고의 신학대학원대학교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한때 신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대학원대학교는 초교파적으로 입학정원이 충원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신축공사에 제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총회와 노회, 신학교 관계자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 다. 희망이 있습니다.

본 대학원대학교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개별적인 영입도 중요합니다. 또한 적은 교단들일 지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 심사숙고하여 각 교단 영입에 문을 열어 놓았으며, 영입하여 교단이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다.

황원찬 총회장은 본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는 바램이 있다면?

우리 대신교단이 출범된 것은 대한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총회와 신학교가 협력관계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군소교단이나 개인도 영입하는 것은 본 교와 교단에 속한 총회회원으로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즉 목회자 연장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함께 가자는데 있습니다.

한편 대신(석수)총회는 지난 3월 6일(금) 오전11시 총회임원회 및 노회 장 연석회의를 열고, 상비부를 조직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를 운영하는데 힘을 실 어주고 있다.

황원찬 목사는 대신(석수)총회 총회장,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경력 2012.03 ~ 제 6대 동 대학원대 총장, 동 대학원대 부총장,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화양동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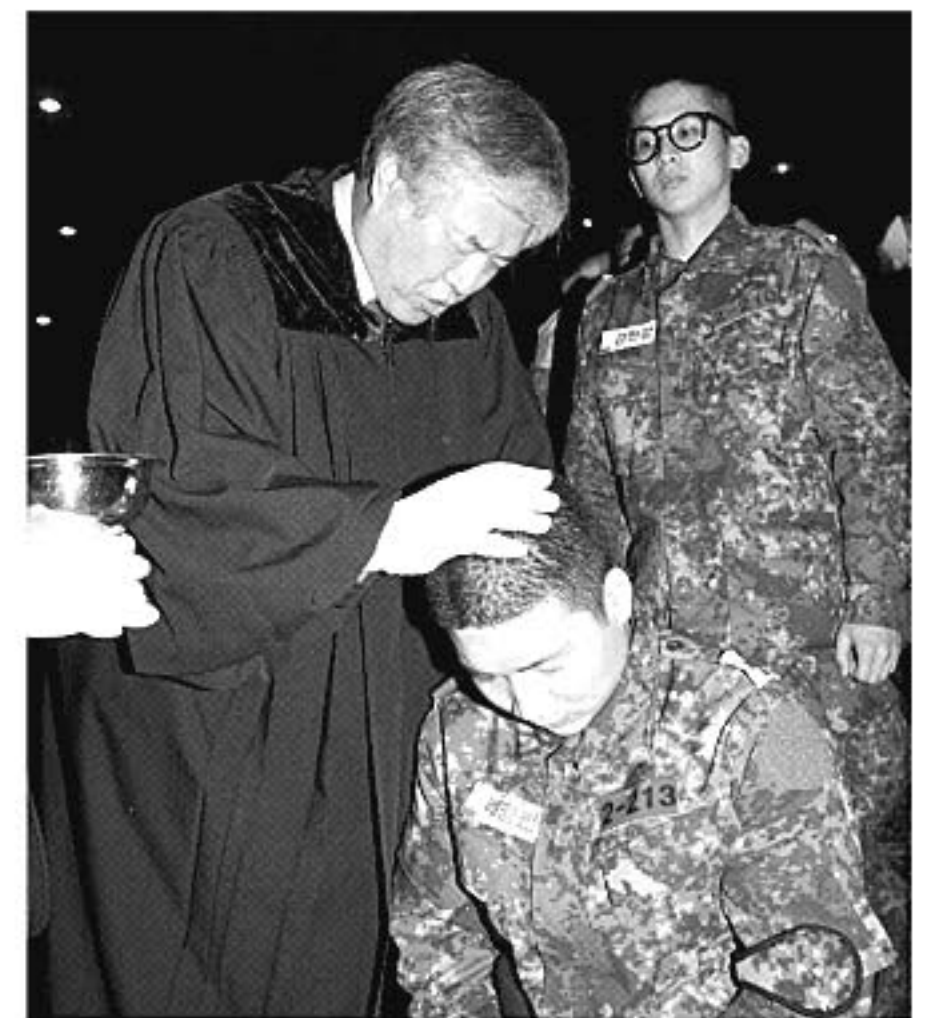


제462차 육군훈련소 장병세례예식 가져

지난 3월 14일(토)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에서 제 462차 장병세례예식을 가졌다.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서 후원한 이번 세례식에서는 3200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군병으로 거듭나 세례를 받았다.

연무대군인교회 김종현 목사의 인도로 군 선교현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과 함께 시작된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서기 이진재 목사의 기도와 총회장 전광훈 목사의 설교, 부총회장 유충국 목사의 축사와 군목부 상임위원 황정식 목사의 격려사 대신세계선교회 이사장 임예재 목사의 축도로 진행이 되었다.

이날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전쟁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6.25전쟁을 모르는 세대인 여러분들이 과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라고 물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이 나라는 수많은



된 세례식에는 32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대신총 목사 68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대신총 장로님들로 구성된 장로성가대가 참여하여 특송과 더불어 목회자들을 도와 함께 세례식에 참여하였다. 이날 세례를 베푼 대신총 한 목회자는

큰 감동을 받아 눈물로 세례식에 참여한 이들도 많았다. 세례식 후에는 대신총회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에게 성경책과 신자가 목걸이 풀플렌징과 삼푸등 다양한 선물들을 전달하여 장병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한편 연무대 교회 김종현

3200명, 예수님의 군병으로 거듭나다

은 이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한 본보기가 되는 나라임을 강조하여 많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배 후 2부 순서로 진행

3200명의 장병들이 한자리에 서 세례 받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군사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영적 군인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세례식에 참여한 장병들도

목사는 지금의 교회가 오래되고 사이즈가 작아서 한국교회의 보루와도 같은 세례 받는 장병들을 위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헌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축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대한노회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교단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전하는 대한노회”



장한국 목사



박민우 목사



백명자 목사



유순옥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8시
새벽예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 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 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호 7층)
☎ 031) 424-7612, H.P 010) 4436-7060

홍재철 목사 후원금 관련, 공식 해명 사과로 끝나

한기총, 제26-3차 임원회의 열고, 윤덕남 목사 총무로 임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21일(토) 오전 8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6-3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39명 참석, 13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후원금 사용조사 위원회 보고의 건은 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후원금과 관련한 입금 및 사용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홍재철 목사가 임원회의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해명 및 사과를 하였고, 이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였다. 정관승인요청 보고의 건은 더 이상의 추가 보고가 없어 사안을 종결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윤덕남 총무서리의 직무가 보류되었던 것을 총무로 임명하였다.

이단검증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 그리스도의교

회협의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이상 9개 교단에 위임 파송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7일(화) 오후 5시까지 각 교단에서 신학교수 및 대표성이 있는 전문위원을 회신 받기로 하였다.

질서확립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한기총과 관련한 CBNTV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3월 26일 오후 2시에 이흥선 목사를 출석요청하기로 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스포츠 위원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2015 한기총 대표회장배 전국 목회자 탁구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시는 5월 26일(화), 장소는 안양 호계체육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로 389)로 하고 신청마감은 5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로 하였다.

원로목사 후원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4월 7일(화) 오전 11시 감리교 신앙연구원에서 "한국교회 원로목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부활절행사 보고



의 건으로 4월 5일 오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기총 단독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자 가정을 위한 한국교회 부활절 회향나눔 특별감사예배"를 드릴 것으로 하고 타 교계 기관에서 축사를 요청할 시 허락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기총 임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발표하였다. 광복절준비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8월 15일(토) 오전 한기총 주최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대표회장에게 일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기타안건으로 최근 방송에서 문제가 지적된 신 모 목사에게 윤리위원회로 회부하고, 조사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이광훈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갈라디아서 1장 6-1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오관석 목사(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및 임원 명단

고문 : 이효은 목사(화정총연합회 원로), 이사장 : 조강수 목사(영광교회 담임), 사장 : 소진우 목사(예복교회 담임), 수석상임이사 : 박형욱 목사(성현교회), 수석상임이사 : 황원찬 목사(화양동교회 담임), 명예이사장 : 정기환 목사(전원중앙교회 담임), 부이사장 : 이규필 목사(동천교회 담임), 부이사장 :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담임), 부이사장 : 정대성 목사(삼성중앙교회 담임), 대표이사 : 정기남 목사(발행인), 부사장 : 전예희 목사(성광교회 담임), 부사장 : 곽예스터 목사(국제금식기도원 원장), 자문 : 이범성 목사(한보협 대표회장), 자문 : 박한규 목사(한경총 자문), 자문 : 허식 목사(한경총직전회장), 상임이사 : 곽동훈 목사(행복의집 원장), 상임이사 : 홍향표 목사(사랑의교회 담임), 상임이사 : 서영운 목사(퓨리탄대총장), 사무국장 : 곽영민 목사(등불교회 담임), 상임이사 : 박동호 목사(별빛교회 담임), 상임이사 : 최낙현 목사(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상임이사 : 박용숙 목사(주성청각장애인교회 담임), 상임이사 : 임해숙 목사(수원할렐루야교회 담임), 중부지사장 : 박양우 목사, 대구지사장 : 박수영 목사(행복교회 담임), 논설위원 : 최순길 목사(수목원교회 담임), 오산지사장 : 김봉주 목사(평전부국장), 군산지사장 : 김종현 목사(군산아름다운교회 담임), 포항지사장 : 이기학 목사(상임이



이사장 조강수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사, 운영이사 : 주은총 목사(은총기도원 원장), 운영이사 : 박종만 목사(취재기자), 운영이사 : 김부겸 목사, 운영이사 : 송미순 목사, 운영이사 : 양미상 목사(헤스코 6-마루 대표), 운영이사 : 유순욱 목사(회계) 위와 같이 사임합니다.

2015년 3월 18일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 조강수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대표이사 : 정기남 목사
사무국장 : 곽영민 목사

CTS 창사 20주년 특별생방송

'CTS WEEK' CTS 영상선교 20년의 열매, 그 기적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2015 성시화운동 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6월 19일-20일 안산 대부도 동산수련원에서 교육컨퍼런스로 진행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는 오는 6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간 2015 성시화운동 지도자 컨퍼런스를 경기도 안산 대부도 동산수련원에서 개최한다.



학과 성시화운동' (안인섭 교수/총신대 신대원), '성시화운동이란 무엇인가'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성시화운동의 문화적 적용' (김인중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성시화운동과 김집 리더' (명성훈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집 리더십의 실제, 네헤미야' (김홍규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도시를 변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김철영 목사/세계성

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등 총 7강좌가 진행된다. 또한 김인중 장로(전 예방합동 부총회장)가 '탈북자 사역과 북한선교 전략'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컨퍼런스 전체 강의를 수강한 참석자에 한해 성시화운동 지도자 교육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성시화운동 지도자 심화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워간다는 계획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안산 동산교회)는 "성시화운동사역이 전교과 해외로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시화운동의 철학과 전략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시화운동은 민족 복음화운동의 선구자 고 김준근 목사(한국CCC 설립자)가 민족의 일체적 복음화 이전에 한 도시만이라도 완전 복음화해 보자는 의도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인구 10만의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CCC 대학생들과 춘천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참가자들은 낮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토크 짝을 지어 춘천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저녁에는 춘천실내체육관에 모여서 정도집회를 했다. 당시 제1호로 결신한 사 람은 춘천시장이었다. 성시화운동은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운동, 복음전도운동, 사회적 책임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순수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를 'CTS WEEK' 주간으로 선포하고, 서울 노량진 본사와 대구, 전주, 경남, 대전, 부산 등 전국 지사를 연결하는 이원생방송을 매일 6시간씩 진행하는 등 일주일 동안 총 60시간 특별생방송을 진행한다.

한국교회사 130년 최초의 영상선교방송 CTS의 은혜와 감동의 지난 20년을 감사하고, 도약과 성장의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창사 20주년 특별생방송 CTS WEEK>는 박종순 목사, 김상복 목사, 브라이언 박 목사 등 영성 있는 목회자의 말씀을 비롯하여 가수 조수아, 라이즈코리아, 게 그우먼 정선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약하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찬양과 간증, 그리고 대한민국 복음화의 작은 불씨가 되



방송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CTS 영상선교를 위해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CTS의 미래 20년을 앞두고 실시하는 <CTS WEEK>를 통해 교회와 함께하는 교계교단 협력사역과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문화 선교사역 진행 등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굳건한 기반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시청자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해외 선교사 위성수신기 지원, HD 장비 후원, 특별후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후원문의: 02-6333-1003)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73번, IPTV(KT QOOK 236번, SK BTB 55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축 부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개혁]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 신입생 · 평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 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화 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함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이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신대원 (주/이과)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졸업 또는 이수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인수

천안개혁총회신학

학장: 김 정 열 박사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후대세교길 43번길 27-17 (한성A상가 3층 세예루살렘교회)
전화: 041-534-8765 010-4731-0391

대전개혁총회신학

학장: 임 순 중 박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중빈7길 75 (변동3-43) 2층 관산성교회 내
전화: 042-320-9193 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학장: 이 은 우 목사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242 (만덕동 947-14)
전화: 010-5511-4848



김정열 목사



강성희 목사 (경전노회)



장한국 목사 (대전노회)



조재호 목사 (경기노회)



도요한 목사 (서울중앙노회)



임순중 목사 (대전노회)



김재길 목사 (부산노회)



박민규 목사 (대전노회)



조순형 목사 (경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5 (읍내리 613-3) 총회장: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조재호 목사(010-6266-1331)

요한계시록1장 강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啓示”(7)

‘성령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구원하시는 것이 “지금도 계시고”입니다.

“전에도 계시고”는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처음에 낳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흠 없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케 하려는 목적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살다가 이 땅에 왔음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타국이고, 하늘이 본향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말씀처럼 뱀기세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있을 때 곧 하늘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전에도 계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오실 분”- 아버지께서 앞으로 오실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오실 분”이 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서 간직해 놓으신 유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업을 그리스도와 같이 받을 수 있게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결론적으로 8절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은 요 1:1의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자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자세히 살피지만 한 마디로 하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한 존재이시고 한 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존수를 따지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존수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인격이 세 분이신 존재로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 노회장,
언론부흥원 부총재

인격이 셋이면 존재도 셋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8절의 말씀을 들여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주이시요, 주가 아버지 안에서 처음과 끝의 모든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 너희의 형제이며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핏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사도요한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깊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요한이 “너희의 형제”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 속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9절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과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요한과 형제가 될 수 있는 “너희”는 계 1:1의 “그의 종들”입니다. 즉 “그의 종들”은 환란 날에 쓰임 받을 종들로서 계 7:3-4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것을 본래로 증거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7장의 144천명도 본래로 기록했습니다. 본래로 기록한 것은 기억 못할까봐 외워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증거했다는 것은 소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144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두 깨닫고 소화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마지막 환란 날까지 온 세대를 걸쳐서 계시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최고의 영광된 제일 큰 종이 환란 날의 두 증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시대의 끝에는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교회에 기동으로 세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이들 중에 우두머리가 요한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은혜시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시대를 거쳐야 끝나는 것입니다. 환란시대에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임을 맡아 4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초림을 증거한 세례요한이 율법시대에 가장 큰 자인 것 같이 세례요한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두 증인들이 신약시대에 가장 큰 자입니다.

현재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신앙의 크기와 영광의 크기가 환란 날의 최고의 중 두 증인들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계 1:1의 “그의 종들”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는 같은 태에서 낳은 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낳는 것과 똑같이 요한도 낳았던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계 1:1의 “그의 종들”입니다. “그의 종들”은 실제적이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그의 영적 생명으로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두 증인들이며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필요하신 말씀과 그에 따른 모든 역사 그대로 난 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들과 요한이 같은 태에서 낳은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 앞에서 “너희의 형제”와 같은 맥입니다. 요한이 받은 환란과 두 증인들이 받은 환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핏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말씀 증거 할 때 어려움 당하거나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받은 환란은 1000도가 넘는 기름 가마에 세 번씩이나 던져졌지만 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 기름 가마에 넣어도 죽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짐승에게 찢겨져서 죽으라고 짐승들만 있는 무인도 밧모에 유배 보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받은 환란입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짐승에게 찢겨져 먹힌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계시록을 썼습니다. 일반 기독교인이 1000도 되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면 뼈까지 녹아 없어지고 맵니다. 상상이 안 되지만 1000도 되는 용광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순교는 죽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된 것 자체가 이미 순교를 한 것과 같고, 또한 순교한 이후에 다시 산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받은 요한의 환란입니다.

제1부 사도영성 그 이론적 배경(4)

제1장 「사도영성」에 대한 이해

3. 종교적 영성이해와 한계

‘영성’은 최근에 종교적 영역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암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포괄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 ‘사상’, ‘경건’, ‘헌신’, ‘신비주의’, 기타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과 관련하여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 ‘영성’이란 초월적인 삶 혹은 내면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내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역사, 심리학, 신학 등 서로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교류하고자 할 때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각기 교리적인 차이 등으로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종교들이 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도 역시 그 핵심적인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말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영성에 대한 종교적인 이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대립적 그룹이 있다. 첫째,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룹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위에서 시작하여 죄스러운 삶으로서의 아래로 이어지는 영성적 흐름이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영성에 관한 이해이며, 성경적 영성의 기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낮아지심으로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내려오는 은혜의 종교로서의 모습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 세계관에 속하는 영성이며, 궁극적 구원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실천적 개념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인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절대적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룹이다.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신적 열망으로 시작하여 위에 있는 절대적 신적 존재로 올라가서 신성한 것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성적 흐름이다. 여기에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교적인 영성과 현대에 환란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성운동과 주장들의



홍합표 목사

사도영성신학원장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성경적 가치이며, 절대자에 대한 도전이자 대립적인 것과 동시에 인간 자신을 위한 타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죄인들이 스스로를 신적 대상으로까지 들어 올려 결국에는 하나님께 까지 이르는 종교적 행위와 사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성흐름에서의 인간의 존재는 인본주의적인 심리적 세계에 속하게 되고, 죄의 문제와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의 개념에 입각하여 생각한다. 구원이 아니라 평안과 건강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권에 따른 인간적인 영성을 강조하게 된다.

구약성경을 통틀어 이러한 이교적인 영성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안팎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이해할 수 없는 타락과 범죄의 연속, 그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은혜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인간의 교만을 이용하여 진리를 왜곡하고자 하는 거짓된 가르침과의 대립과 싸움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조화와 협력과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분명한 분별을 통한 진리의 선포만이 있을 뿐이다.

교회는 매 시대마다 이와 같은 가짜 영성의 유혹을 받아 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직면한 또 다른 도전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성경적 진리에서 단절된 영성을 팔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전통교회라고 자부하며 경계의 분별력을 놓쳐버린 복음주의 교회들 가운데, 특히 구도자 지향적인 교회와 새 시대의 ‘이머전트’(emergent: ‘신생의’, ‘신흥의’라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지향하면서, 전통적인 교회형태와 가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지향하는 교회운동이다. 하지만, 그 이면의 영성이 성경적 신적 존재로 올라가서 신성한 것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영성적 흐름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사고에 따라 분별력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에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거짓된 영성을 업

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모습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교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스스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약성경의 자손이며 예수와 사도들의 추종자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든 문화적으로 침대를 걷기 위해서든 비성경적인 영성을 포용하고 있다. 구도자 지향적 교회는 자기들의 상품을 아주 적은 진리와 함께 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영성의 시장에 맞추고 있고, 이머전트(emergent)들은 그들의 상품을 진리를 경계하는 포스트 모던(post modern)적인 영성과 젊은 세대의 영성의 시장에 맞추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새로운 영성은 이전의 종교가 가지고 있던 공적인실천의 영역보다는 사적인 의미의 추구, 자기보다 더 큰 그 무엇과 연결되려는 열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만든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사람들은 직접적 체험을 신뢰하지만, 연관되어진 것은 불신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라는 불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하지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영성, 자신의 인식에서 나오는 영성은 직접적인 것기에 그것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신뢰할 만한 깨끗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교만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해진다. 하지만 인간의 지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개조하려고 하는 신앙형태가 실상 흔히들 ‘복음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영성이 교회 안에 출현하도록 기여한 측면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은 기독교 교유의 용어도, 기독교가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어도 아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범종교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은 자기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어떤 정신이나 삶을 분방하려는 인간적 노력, 인간의 자기초월적 능력이라고도 정의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및 JTNTV방송 독자 제위께

본 신문사와 인터넷신문 JTNTV방송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JTNTV방송은 선교비 및 광고비와 구독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은 우편요금과 종이 값에 지나지

않 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본보와 JTNTV인터넷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구독료와 선교비를 보내지지 않은 독자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하며 내내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110-003-518810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8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미국장로교 (PCUSA), 동성결혼 법안 승인 발효

"규례서 예배모범개정안 14-F, 미 전체 171개 노회 중 86개 노회 찬성 통과"

미국장로교(PCUSA)가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안은 2014년 6월 디트로이트 제221차 총회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투표에 의해 통과된 이후 9개월 만에, 교회의 법인 규례서의 개정안 14-F(W-4,900 결혼의 대한 개정안)가 미국장로교 전체 노회 수(171개)의 과반수 이상(86개)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된 것이다. 다시말하면, 1표 차이로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정식 헌법으로 규례서에 쓰여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총회장 및 부 총회장의 명의로 보낸 '결혼 개정안에 대한 서신'을 보면, "승인된 개정안은 결혼의 신성함과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커플들의 사랑을 높여 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목사들로 하여금 결혼식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회적 재량을



PCUSA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렇게 할 때에 목사는 결혼식을 위해 교회 부지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 당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결혼 집례의 권한은 목사의 재량이지만, 어떤 커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PCUSA 소속의 한인교회들은 앞으로의 방향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관은 진보주의적 신앙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단이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장로교의 특성상 한인교회들이 당장에 탈퇴를 선언하기란 쉽지 않은 모습이다.

LA에서 다니엘 방 기자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임원발표



총재 이효은 목사



대표회장 조광수 목사



연수원장 소진우 목사



상임대표 정기남 목사



사무총장 권영민 목사



강서단장 박수영 목사

총재 : 이효은 목사(고문), 대표회장 : 조광수 목사(이사장), 연수원장 : 소진우 목사(사장), 상임대표 : 정기남 목사(발행인), 사무총장 : 권영민 목사(사무총장), 강서단장 : 박수영 목사(대구지사장), 상임총재 : 박영희 목사(상임이사), 황원찬 목사(상임이사), 이규필 목사(부이사장), 정기환 목사(명예이사장) 부총재 : 장한국 목사(부이사장), 전예희 목사(부이사장), 실무총재 : 박동훈 목사(상임이사), 정대성 목사(부이사장),

홍창표 목사(상임이사), 자문 : 이범성 목사(한보협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자문), 허식 목사(자문), 박양우 목사(중부지사장), 서영웅 목사(상임이사), 최순길 목사(논설위원), 상임회장 : 박동호 목사(상임이사), 최낙현 목사(상임이사), 박에스더 목사(상임이사), 박용숙 목사(상임이사), 임혜숙 목사(상임이사), 실무회장 : 김봉주 목사(오산지사장), 김종현 목사(군산지사장), 이기학 목사(포항지사장), 공동회장 : 주은총 목사(운영이사), 박종만 목사(취재기자), 김부경 목사(운영이사), 송미순 목사(운영이사), 서기 양미상 목사(운영이사), 회계 유순숙 목사(운영이사) 등이 조직되었다.

2015년 3월 18일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협의회

총재 : 이효은 목사, 대표회장 : 조광수 목사, 연수원장 : 소진우 목사, 상임대표 : 정기남 목사, 사무총장 : 권영민 목사

한기총대표회장배 전국목회자 탁구대회 결의

준비위원장에 이주태 장로 만장일치로 추대

2015년 한기총 스포츠위원회가 상반기 1차 모임을 3월 19일 AW 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1차 모임에서는 1부 예배와 2부 스포츠



한기총대표회장배 전국목회자 탁구대회 결의

초선교에 대한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스포츠위원 신연창 목사(예장웨신)의 기도와 스포츠위원장 김진욱 목사(예장웨신)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신연창 목사는 기도를 통해 "스포츠위원회가 스포츠를 통해 단합된 모습으로 기독교의 신뢰회복과 경제침체로 힘들어하고 어수선한 정치계의 소식으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스포츠위원회가 되어 확실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김진욱 목사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버려진 광야조차 거룩한 땅이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이방신을 제하시는데 시작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거룩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안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스포츠위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 스포츠를 통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설교했다.

스포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한기총 대표회장배 전국목회자 탁구대

회'에 대한 안전과 토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전국목회자탁구대회'의 효령이 이어져 올해에는 더 많은 목회자의 참석을 통해 풀워 있고 질 높은 대회를 준비하겠다는 위원회는 적극성을 갖고 각 교단내 목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추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스포츠위원회, 주관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일시 2015년 5월 26일 오전 8시, 장소 안양호계체육관 등이 결정됐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중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한기총 대표회장배 전국목회자 탁구대회를 통해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스포츠대회가 전국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010-2351-6771, mission987@naver.com)

고난주간,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광림교회, 고난주간 맞아 전시회, 영화상영, 성찬예배 준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이다. 참혹한 십자가 처형 앞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시고 끝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다.

광림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기리는 여러 행사를 마련하였다. 먼저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뜻하는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 전시회가 3월 22일(주일)부터 4월 4일(주일)까지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역사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전시회이다.

3월 29일(주일) 낮 1시 30분 광림교회 장전홀에서는 영화 <아우레리아 Are you ready>가 상영된다. 이 영화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북한 지하교회 존재의 증거를 통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남북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간파했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4월 2일(목) 저녁 8시에는 수난절의 오르간 음악을 <박해선 파이프로르간 독주회>로 들을 수 있다. 4월 3일(금)에는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성금요성찬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며 고난주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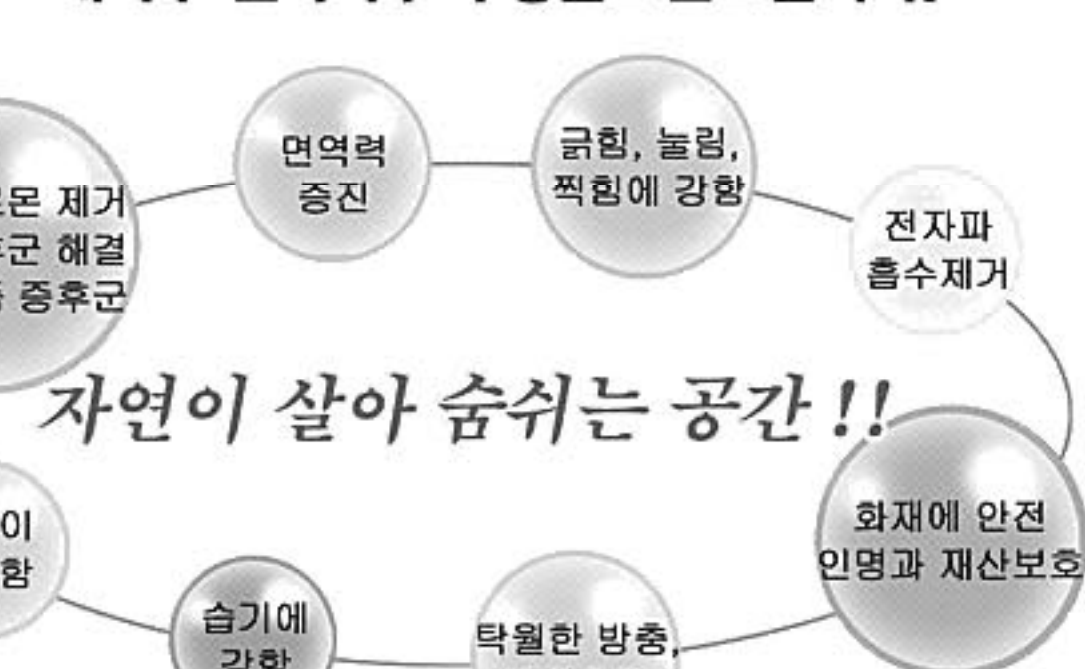
마무리한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대처럼 보이는 이 도시의 속을 들여다 보면 타락하고 병들어 있으며 희망 없어 보이는 수많은 이웃들을 마주치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자신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고난주간 예수님게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 : 02-2056-5624

최고 품질의 기능성 대나무 명품 마루! 헤스코 G-마루!



특허 및 시험성적서

건강을 생각한 과학마루...헤스코 G-마루는 과학적 환경기술로 생산되는 대나무 원목마루의 명품브랜드입니다.



특수한 삼투기술의 음이온과 원적외선의 결합

- ▶ **환경성** 면역력저하로 천식, 피부병, 감기 등을 유발시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환경호르몬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 과학마루!
- ▶ **내구성** 특허기술로 생산된 헤스코 G-마루는 마루원목에 함유된 수분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휘거나 뒤틀림의 현상이 없고, 방충 및 항균작용이 뛰어나다.
- ▶ **안전성** 불이 잘 붙지 않는 천연방염제를 원목에 함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높여 화재시 유독가스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 마루입니다.
- ▶ **경제성** 여름에는 습도가 적어 끈적임이 없고 시원하며, 겨울에는 열전도율이 높고 보온성이 뛰어나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 ▶ **기능성** 대나무에 함유된 음이온과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대나무 원목에 천연음이온을 함입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특허기술로 천연기능성재료를 삼투시켜 인체에 가장 이로운 5~20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을 선택적으로 방사,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를 원활히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과학적 환경마루입니다.

<온돌용>

<상업용>

지저스타임즈 신문 · JTNTV방송

축 부 활 전국교회 4월 주일예배 안내

2015년 4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동행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눅 20:36)
문서선교에 힘써주시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게재문의 : 010-5468-6574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담임 이규필 목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 (02)3281-31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연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시온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1146-6 에스파스 B02호
☎ (070)7501-2584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승기 목사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월만한물가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9시
오후 11시
오후 2시



담임 김인식 목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목원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최순길 목사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 (02)2683-2091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연합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번지 구로우성@상가202호
☎ (02)869-0166 Fax(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형표 목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 (02)583-1955 H.P. 010-7585-19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흥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5시



원로 김인식 목사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 (02)476-713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천영락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허식 목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35-5 센스빌딩 4층
☎ (031)416-8290

은총 기도원

주일예배 안내

◇ 매일 첫째 주일-목장기회
(세계주영관 부흥사회 주관)
◇ 매일 셋째 주일-목장기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회 주관)
◇ 매일 넷째 주일-목장기회
(세계주영관 부흥사회 주관)



원장 유준수 목사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정설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담임 김봉주 목사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01호
☎ (031)378-9349(FAX겸용), H.P. 010-2378-9349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담임 이이중 목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 (031)714-1426, 7236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담임 임희숙 목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 (031)224-4947 H.P. 010-4611-322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박훈수 목사(우송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88-6
☎ (02)414-1191 H.P. 010-3775-5154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종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033)541-0687 H.P. 010-7405-9191

강릉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 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헌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6-12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 오후 9시



담임 서명범 목사

충남 공주시 이월6-1(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 (041)853-9966 http://lov153.cafe24.com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 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담임 광완국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 (041)854-3676 H.P. 018-320-1507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준주 목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202호
☎ (070)8632-6993 H.P. 010-3035-5704

피종진 목사 4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대한예수교
남서울중앙교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1(수) 저녁 제네 서울 개신교회(정병익 목사) ☎ (02)2643-4236
2(목) 오전 오천 한성교회(정병익 목사) ☎ (02)2067-4500
5(주일) 오후 서울 금곡교회(정병익 목사) ☎ (010-4870-7572)
6(월) 오전 오천 한성교회(정병익 목사) ☎ (010-5301-8220)
6(월)~8(목) 함 브나영교회(정병익 목사) ☎ (010-3490-0108)
9(목) 오전 서울 중흥교회(정병익 목사) ☎ (02)2479-7131
11(토) 오전 파주 만안교회(정병익 목사) ☎ (041)531-8226
12(주일) 오후 대전 주안교회(정병익 목사) ☎ (041)531-8226
12(주)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정병익 목사) ☎ (02)436-1777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병익 목사) 대표회장 정병익 목사
13(월)~15(목) 군산 마리아교회(정병익 목사) ☎ (010-9679-8477)
16(목)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정병익 목사) ☎ (02)555-0712, 010-3224-2345
17(금) 오후 천안강변교회(정병익 목사) ☎ (02)2643-4236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후원: CTS(목교TV, CBS(목교방송, 국민일보)
19(주) 오후 의왕 대흥교회(정병익 목사) ☎ (031)424-1084
주최: 글로벌총회협의회
20(월)~22(수) 청성 은누리교회(정병익 목사) ☎ (010-5348-0664)
24(금) 저녁 경기도 광주 성신교회(정병익 목사) ☎ (010-2235-3927 서울
글로벌교회(정병익 목사) ☎ (010-4870-7572)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이희제 감독(Bishop)



이정민 목사(Minister)

예배 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2층 성전) ·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 기도원
· 학생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2층 성전
·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 성전 ·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새 지하 성전
·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새 지하 성전 ·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www.scogop.net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장사 박수영 목사

· 영적영양치유센터장
· 세계주영관 부흥사회의 장사단장
· 경북대학교 영남교회 원로목사
· 담양노회 노회장

집회 고집받은 내용

☆ 회맹: 침상병으로 눕혀지고 귀머거리로 고집받은
☆ 유전: 만성병으로 기아기독교대학원에서 퇴원 장애난치증 고집
☆ 김소영: 류마티스관절염 평생지명 집회중 선로 기도회 고집받은
☆ 남영주: 재경관장성명 집회중 선로 기도회 고집받은
☆ 김명주: 만성병으로 10년 동안 고집받은 고집 받은
☆ 박수영: 30년동안 피로병으로 고집받은 이적이 내리간증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편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집받은
☆ 김복희: 고혈압 20년 지병 증상으로 고집 받은

수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회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전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예장(예능)총회 임원

본 교단은
2014년 5월에 설립된 신생 교단으로
새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에
가입된 진정한 교단입니다.

총회장: 권영민 목사

총무: 임태우 목사
서기: 장민현 목사
회록서기: 조충만 목사
회계: 최금용 목사
간사: 김영애 전도사

총회 가입문의: (간사)010-6778-0651
"하나님 중심, 말씀중심, 교회 중심"
인천 남구 능해길5 등불교회

2015년 표어 : **예수의 증인이 되자** (행1:8절)

부활



담임목사 박형휘

■ 담임목사약력

총신 대학 졸업, 총신 대학원 졸업, 총신 목회대학원 졸업, 캐나다 크리스찬 신학대학원 졸업(철학박사)

- 총신 교학처장 역임
- 총신, 개신, 한영신대, 대한신학 출강
- 여정(영동)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장년)
- 여정(영동)전도부 상임위원(현)
- 여정(영동)종교노회 중경노회회장
- 방배경찰서 경무
- 이수복기관 전문위원
- 한국외환선교회 실용이사
- 사단법인 한국목회신교협의회 대표
- 한국 영상미디어 회장
- 한국 기독교부흥 타임즈 논설위원
- 21세기 국제선교협력위원회 상임총재
- 인천국제공항관세청 설교담당

■ (목사님 저서)

- ▷ 교회와 신앙
- ▷ 기독교와 진리
- ▷ 프리마 성경공부 교재
- ▷ 해마 성경공부 교재
- ▷ LCC 성경공부 교재
- ▷ LSC 성경공부 교재
- ▷ LSC 성경공부 교재
- ▷ GPI 성경공부 교재 1,2,3,4,5,6,7권
- ▷ LTS 성경공부 교재
- ▷ The Bible Academy 교재

예배시간			
세례기도	5: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유초등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9:00
	3부 오후 2:30	장년·대학부	오후 2:30
성당예배	오후 7:00(수)	Steward Life (청지기 삶) 성경공부	오후 2:00(목)
구역장 성경공부	성당예배후	제자양육 성경공부	오후 7:30(목)
금요한방기도회	오후 9:00(금)	새전자 성경공부	오후 1:00(수)
교구별 기도회	오후 9:00	장년부 성경공부	오후 1:00(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SUNG HYUN PRESBYTERIAN CHURCH

교/회/안/내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충만한 교회
 훌륭한 영적 목회자를 모시고 성장하는 교회
 21기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소망이 있는 교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활성화된 교회
 지역사회에 사랑과 섬김으로 나누어주는 열린교회
 교회가 편리한 사당동에 위치한 친근한 교회
 지하1층 지상4층의 아담한 교회입니다.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9-7 ☎593-3909 / 목사관 593-0140 / Fax 592-3909 이메일 hyunghwi@nate.com

부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Restore! You will be restored!

2015 회복하라! 회복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9)

예배시간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오전 9:30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30
2부 주일오전 11:00	유 처 부	주일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00	유 초등부	
수요예배 수요일오후 7:00	청소년부	주일오후 2:30
금요철야기도 금요일오후 10:00	청년대학부	주일오후 2:00

지향하는 4대 목표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선교활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부흥성장의 모범이 되는 교회
 축복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신앙생활 수칙

절대 하나님 중심
 절대 말씀 중심
 절대 교회 중심
 위계 질서 존중
 나눔 실천의 생활화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테)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장암동)
 전화 : (02) 934-1232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절)



이범성 목사



지왕철 목사



박동호 목사



민정식 목사



이상원 목사



이정구 목사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
 교단과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25 6층(화곡동 호우빌딩)
 ☎(02)2608-2190, 2198 / FAX:(02)2608-2191

http://www.hankibo.co.kr
 Email : hankibo@naver.com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당회장 정대성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지 66(화정동 5층) 전철(3호선 화정역 1번 출구)
 TEL 031-974-7091

생기야 오라(에스겔 37:1-10)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 전체 중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 골짜기로 유명한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생기야 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은 B.C.605년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습니다. ▶2차 침공은 B.C.598년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훌륭한 모든 일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뼈라도 살리시면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을 보

면 소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I. 골짜기의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골짜기에서는 극심한 전부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지표면 위에 있습니다. 원래 뼈들은 지표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죽었어도 누군가 장사 지내 주지 못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요, 적막의 골짜기입니다. 이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방에 포로가 되어 돌아온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II.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II.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 대언하는 대상이 회한합니다. 마른 뼈



정기환 목사
명예이사장
(전원중앙교회)

(겔 37:4)와 바람(겔 37:9)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이나 피폐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뼈들이 살아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뼈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무절서 하던 뼈들이 맞고, 생기가 들어가 근육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를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구원의 확증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국교회와 모든 국민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을 사망권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

고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참된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과 승리와 소망의 기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나 교계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지만

남북한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의 패권주의 팽창은 우리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교계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와 세속주의,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등으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으며, WCC를 비롯한 이단들의 준동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나 교계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안정된 부강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계가 날로 성장되어 이 나라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적인 통

일이 이루어짐으로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표회장 이병성 목사
한국기독교교수교단협의회

복음과 실용음악

예수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선교사와 [아펜젤러]선교사가 인천항에 각각 발을 디딘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었다. 언더우드선교사는 새문안교회를 세우고 또한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식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아펜젤러선교사는 정동감리교회를 세우고 또한 배제학당을 세우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학문과 복음을 전하였다.

아펜젤러선교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의 충돌 사고로 44세의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였다. 이들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한국의 국민성과 같이 대 부흥을 일으켰다. 한때 120만명의 성도라고 할 만큼 기독교의 전파가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돌아 볼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교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의 한 가지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의 구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반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호6:6)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바른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으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닌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었

던 때가 있었다. 중략(JTNTV참고) 진정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이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문화적인 면 때문일까? 인본주의적 욕심 때문일까? 인간의 무지 때문일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다.(엡2:2) 이 마귀가 한국인의 국민성을 모를 리 없다. 복음이 전해지면 대 부흥이 일어날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웬만한 교회는 소위 찬송을



김성기 교수
예배부흥신학원 교회음악 교수

인도하기 위해 전문인들을 세우는데 대부분 실용음악 전공자들을 세운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130년 전부터 작업을 한 것이 분명하다. 실용음악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말한다. [실용음악이란? 1800년대 후반 독일의 음악가 '헨데미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사상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수효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라고.....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명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그리스도는 깨어있어 기도 하라고 말씀하신다.(막14:38) 매사에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음모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갈1:10)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정의와 순결 사회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며 살아왔다. 또한 백의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와 순결을 지키면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민족도, 백의민족도, 예의지국도 아닌 나라로 변모되었으며,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으로 파괴되어가는 혼란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 안정은 곧 사회 안정과 가정 안정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6·25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 오늘의 젊은 세대와 위정자들은 지나간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음은 정치적 사회적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남한을 독식하기 위해 피나는 군사 훈련과 핵폭탄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국방은 방산비리와 군정신 해이로 국민들 보기에 너무도 낙관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를 동원하여 국방력 강화에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경제 안정 측면에서 필요사업 예산만 집중 시켜야 하며 방만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서민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아비 보육비 무상급식 등은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국가사업인 것이다. 경제 지수가 높다 해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면 건전한 경제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발전은 사회 안정이며 또한 가정안정인 것이다. 지난 2·26일 헌법 재판소의 전원 재판관 등이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앞으로의 사회와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관들에게 묻고 싶다. <중략>

간통죄를 폐지 한다는 것은 가정파괴이며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정사회를 위해 신속한 대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이 속히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 재판관들의 간통죄 위헌 결정은 속히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 아니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전원 투표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간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은 순결과 정절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부부간에 사생활 비밀은 있을 수 없다. 사생활 비밀을 자유침해로 위헌 결정 했음은 허용 할 수 없는 것이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원을 원점으로 회복시켜 가정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중 7계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고 돌비에 새겨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는 계명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계명이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확실한 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너무도 아름다워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 말씀을 오늘에 비유하면 간통죄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표현을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양적 하여 그 아름다움에 침을 삼키며 도저히 돌아 설 수 없어 따먹은 것이다.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는 약한 존재이다. 그런 유혹 자체를 법으로 지켜 왔는데, 사생활 자유 비밀 침해라는 것은 죄를 부추기는 결과라 생각한다. 사회혼란 가장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분명한 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일부 몇 사람의 재판관들의 위헌 결정으로 가정사회 구성요건이 잘못 된다면 국민 모두의 아픔인 것이다. 우리는 정의롭고 순결한 사회를 형성하여 선조들의 민족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단일민족으로 깨끗한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명중 목사
류리원 장로교회 목사
(상암이사)

꿈(Dream)

사랑(Love)

행복(Happy)이 넘치는

축 부 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2015 행복한 만남이 있는 교회!

전원중앙교회
http://www.gardenchurch.org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전원중앙교회는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전원중앙교회의 미래 1. 성장하는 교회 2. 건강한 교회 3. 아름다운 교회

성경은 본분

† 파송선교사 : Johnny, Peligm(필리핀), 김구현(키르기스스탄), 박해영(일본), 윤정락(호주), 안성태(태국), 방영순(대만), 이원철(김보디), C국(Thomas 김)
† 협력선교사 : Nengzakha(인도 Manipur) 외 12개국 24명 † 강도사 : 최병철 † 전도사 : 이희순, 김성현, 박광민, 윤신여
† 집로 : 표사동, 임철수, 김대중, 박준민, † 전도인 : 서승희 † 성가대지휘 : 송영자, 피아노 : 조은지, 키보드 : 서승희(전도인)

☐ 베달성서대학 : 매주 토요일 오후 8:30~9:30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주일 오전 11:00(본당) 2부 주일 오후 1:30(본당)
주일저녁 예배 주일 오후 7:00(본당)

청년학생예배

청년회 1부 주일 오후 1:30(본당) 2부 주일 오후 4:00(3층 청년부실)
학생회 1부 주일 오후 1:30(본당) 2부 주일 오후 2:30(3층 학생부실)

주일학교예배

1부 주일 오전 9:20 (소예배실)
2부 주일 오전 10:00 (소예배실)
3부 주일 오후 1:00 (소예배실)

성가는 사람들

장로 : 임철수, 박준민, 김대중, 표사동
전도사 : 이희순(새선사), 전병희(아동부)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정기환(D.Ed., Th.D.)

▷SBS방송설교인라인: 라디오 5분 메시지, AM837, FM98.1 매주(목) 저녁8:55분

▷cbs 인터넷방송 WWW.CBS.CO.KR 24시간 청취가능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이사장(www.jtntv.kr www.cpj.kr)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75번길 30-5 (상동 579-5)

사무실 : (032) 321-9101, 전화실 152-3927

홈페이지 : www.gardenchurch.org

교회동산 : 강원도 양주군 동면 원당리 산43-4번지

가보고 싶은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영광교회, 만나보고 싶은 조강수 목사(JTNTV방송 언론부흥사협회 대표회장)...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당회장 조강수 목사
Pastor Gang Soo Gho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축
부
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1:4).

- 부 목 사 : 이주홍
· 협력선교사 :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 장 로 : 임청수, 이청옥, 심재현, 김준현, 고재훈
· 심방전도사 : 원명숙
· 교육전도사 : 이민규
· 전 도 사 : 양승숙
· 성가 대장 : 심재현
· 지 휘 : 박성진, 왕소정
·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 예배 밤 11:00	학생부 예배 (토)오후 4:30
주일 천양 예배 오후 6:30	새벽 예배 오전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오후 1:00	청년부예배 (토)오후 7:00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36(구)가좌4동 4-24 ● TEL (032)575-1654 FAX 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피종진 목사 초청

영광교회 축복대성회

집회 안내

일시: 2015년 4월 12일(주일)저녁 ~ 14일(화)저녁까지

시간: 새벽 4시 30분,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장소: 영광교회 본당

할렐루야!
지구를 40바퀴 이상 돌면서 세계부흥의 주역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산역사이신 피종진 목사님의
축복대성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 강 사 ◆



피종진 목사

·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
· 국제침례신학교 학장
· 새생명의료재단 원장

◆ 담임목사 ◆



조강수 목사

· 인천장로교연합회 대표회장
· CBN기독교방송 대표회장
· 인천기독교목회자연립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4-24 TEL (032)575-1654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는 본 신문방송 단체이며 취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원 및 개 교회, 농어촌 오지에 이르기까지 신청하시는 교회를 찾아가 지역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본 단체는 총재 이효은 목사를 중심으로 전진교단의 목회자들입니다. 벌써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언론부흥사협회에 뜻을 가지신 분은 언제든지환영하며 부흥사로 같이 땀 흘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합니다.

총재	대표회장	연수원장	상임총재	상임총재	상임총재	상임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실무총재	사무총장	강사단장	자문	자문	
																	
이효은 목사 (화정중앙교회)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박형휘 목사 (성현교회)	황원찬 목사 (대신석수총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	정기남 목사 (신문방송 대표이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곽동훈 목사 (대신총회 부총회장)	정대성 목사 (삼성중앙교회)	홍형표 목사 (경복교회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매곡부흥사법 대표회장)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성교회)	이법성 목사 (한기보법 대표회장)	박한규 목사 (수도권 은목교회)	
자문	자문	자문	자문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상임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서기	회계
																	
허식 목사 (경복교회 중경회)	박양우 목사 (경복교회 서기)	서명웅 목사 (유리민영교회 총회장)	최순길 목사 (수목원교회)	박동호 목사 (반월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곽에스더 목사 (국제침례신학교 원장)	박용숙 목사 (주성당가정예인교회)	임혜숙 목사 (수원침례마침교회)	김농주 목사 (오산반석교회)	김종현 목사 (군산지자장)	이기학 목사 (취재부장)	주은총 목사 (취재부장)	박종만 목사 (취재부장)	김부경 목사 (운명이사)	송미순 목사 (운명이사)	양미상 목사 (하소 G-이후 대표)	유순옥 목사 (조예교장성교회)



지저스타임즈 홈페이지 http://www.jtntv.kr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3(대운빌라 202호)
대표전화) 070-8230-0034,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이사:010-5468-6574, 사무국장:010-2080-0651
e-mail: jtntv@hanmail.net 웹하드: I.D-cpjr, P.W-km1122